

추밀공파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권오돈(문충공 회장) 임시대행

추밀공파(회장 권경석) 제30회 정기총회가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11시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되었다. 추밀공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에서 회장 임시대행을 승인하고 또 인준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병선 임시의장은 이를 위해 청화공, 충정공, 정헌공 3파 회장단이 사전에 긴급 회동을 갖고 권오돈 문충공 회장을 추밀공파 회장직 대행자로 추대하기로 결의했음을 설명하며 권오돈 문충공 회장을 추밀공파 임시대행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전 회원들에게 요청하자 회원들은 큰 박수로 임시대행직을 승인했다.

권오돈 임시대행은 인사말에서 권경석 회장의 패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로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인적, 물적 여러 부문에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후 회의는 권오돈 임시대행이 주재했다. 경과보고는 권경일 사무국장이 보고했다. 감사보고는 권병문 감사가 보고했다. 권경일 사무국장이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자 전 회원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기타토의에서는 현 사무실 월 임대료가 상당한 관계로 향후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이 문제는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모두 마쳤다. 점심식사 중에도 회원들은 권경석 회장의 병환을 염려하며 하루빨리 쾌유해 종무에 복귀하기를 기원했다. 대중회 권해옥 회장은 축하 화환을 보내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시조 태사공 할아버지 자손…화합하자

여암(如巖) 권인탐(정조공파회장) 파종회차협의회 회장이 직접 쓴 신년 휘호이다.

안동권문의 족친은 만 갈래의 가지처럼 무수히 많아 이미 100만에 이르렀다. 그러나 뿌리는 하나이다. 그야말로 만지동근(萬枝同根)이다. “시조 태사공 할아버지 자손임을 잊지 말자. 우리 선조들은 일천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유산과 숭조 정신, 애족사상 및 충효정신을 뿌리

깊게 실천 하였으며 전국의 많은 성씨 중에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상신(相臣)과 문형(文衡)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8대 명벌(名閥)이었다.

이러한 선조들의 훌륭한 유산과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 이기에 화합하고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의 원천이 되리라”는 의미에서 신년휘호를 준비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안동향교 권오극 전교 취임식 개최



안동향교 권오극 전교 취임식에 참석한 유림들

안동향교 권오극(權五極) 전교(典校) 취임식이 12월 6일 오전 11시 안동시 명륜동 안동향교 3층 대강당에서 시내 각 사회단체장, 문종 대표, 유림(儒林),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안동권씨대중회 권계동, 권오수, 권중준 등 세 고문,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장, 박원갑 경북도향교 재단이사장, 류창훈, 김규현 역대 안동향교 전교, 권숙동 안동권씨안동종친회장, 권오진 예안향교 전교, 안승관 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회장, 심재택 박악회 안동지회장, 권택기 안국회의원, 권광택 안동시의원, 권기호 북아공파종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영진 부호장공파종회장, 장숙진 태사묘관 리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박동균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상례(相禮), 문묘향배(文廟向拜), 김회동씨의 윤리선언문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신인 전교의 약력소개에서 권오극 전교(82. 35세, 북아공파)는 안동사범학교 본과와 대구대학교 대학원을 각각 졸업한 후 안동, 의성교육청 장학사, 안동임하초등학교 교장 등 40여 년간 교편을 잡아오다 정년퇴직을 하였다. 퇴직 후 안동향교 사회교육원장, 안동향교 명륜회장, 안동태사묘 관리위원장을 각각 역임했다. 권 전교의 임기는 올 12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권오극 전교는 취임사를 통하여 “안동향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일기쓰기를 적극 권장하여 인성교육이 쌓이도록 할 계획

인데 일기를 생활화하면 첫째 추억을 남기고 둘째 문장력을 기르며 셋째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식장에는 권해옥 대중회 회장등 10명이 대형화환을, 권영세 안동시장 등 20여 명이 생화를 보내와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타월 1장, 명륜교본(明倫敎本) 책 1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준비한 2019년 탁상달력 1개씩을 선물로 전했다. 취임식을 마친 참석자 전원은 향교 건물 지하에 자리잡고 있는 ‘밀래한정식’ 식당에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정식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한편 안동향교는 대설향교(大設鄕校)로서 서울의 성균관에 버금가는 넓고 큰 규모로 지금의 안동시청 자리인 시내 명륜동에 있었으나 1950년 6.25 동란으로 향교가 전소(全燒)되고 소장서적(所藏書籍)이 소실(燒失)되어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안동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기록한 안동의 제일 오래된 귀중한 읍지(邑誌) 영가지(永嘉誌 1602~1608) 권 4에는 안동향교의 학령(學令) 20 조목(條目)이 실려 있으며 다른 책자에도 안동향교가 기록되어 있다. 1983년 안동향교 복설(復設) 이후 지난 32년 동안 역대(歷代) 전교(典校)는 김씨 3명, 류씨 3명, 이씨 1명이 각각 맡았으나 안동권씨가 전교로 취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부장 권영건〉

마포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마포종친회(회장 권승구)는 12월 9일 11시 공덕동 로타리 주변 우가촌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경탁 총무의 사회로 시조묘소 망배(望拜), 회장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임원선출, 기타 토의 등의 순



으로 진행하였다. 권승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몹시 추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80이 넘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는데 아직도 회장직을 맡고 있다. 총무를 16년 담당했고 회장을 8년째 맡고 있다. 이제는 종친회 발전을 위해서 젊은 사

람이 나서야 할 때인데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들은 연로 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젊은 층을 꾸준히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경탁 총무의 결산보고, 권승용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차기 회장 및 임원 선출에 들어갔는데 회원들은 차기 회장으로 권승구 회장과 권경탁 총무 등을 비롯하여 현 집행부를 큰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2018년도 안동능우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능우회(陵優會: 회장 권기원) 2018년도 정기총회가 12월11일 오후 5시 30분 안동시 평화동 ‘청운한정식’ 식당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오갑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望拜), 회장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임원선출,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권기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많은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회장을 맡은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임기가 다 되어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오갑 사무국장은 능우회원의 단합행사 등 6가지의 경과보고와 권용한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날 임원개선에서 권충근씨(70. 34세, 동정공파)를 제9대 능우회 회장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에 권희태, 감사에 직전회장인 권기원, 사무국장에 권오갑씨를 유임시켰다. 권충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능우회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많이 참여 할 것”을 부탁하고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충근 회장은 안동농협 전무와 상임이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후 현재 안동지역 농협퇴직자동인지회장, 권씨를 사랑하는 모임 즉 권사모 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능곡회(陵谷會) 회장단이 참석, 권기호 능곡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임 능우회 권충근 회장 선임을 축하하며



아울러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능곡회 송년의 밤> 행사에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달라”고 부탁했다.

기타 토의에서 권오갑 사무국장은 “능곡회원 가운데 나이가 만 65세로 년한이 만료되는 회원 6명이 내년 상반기에 능우회에 입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권오익 대중회 사무부총장이 떡을 준비해 왔다”며 모두들 박수를 치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경남 하동군 옥종 문중 추향제 봉행

지난 12월 1일 하동군 옥종 문중 안동권씨 28세(휘 必謹) 선조의 자손들이 하동의 묘소를 찾아 시제를 올렸다.

선조는 산형 단계에서 출생하여 하동 옥종면으로 장가들면서 하동에 정착한 입향조이다. 이날 시제에는 동근(東根) 8

대 종손과 영호 부산종친회장을 비롯하여 40여명의 후손이 참석했다. 후손들은 우애가 남달라 매년 많은 후손들이 참석하고 있다. 28세(휘 必謹) 선조는 대사간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동계공(시호 충강, 휘 濤) 선조의 5



세손이고 동계공의 차손인 금포공(휘 斗章)의 증손이다.

謹 賀 新 年

새해를 맞이하여 100만 족친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族親 여러분 반갑습니다. 多事多難했던 戊戌年을 보내고 希望찬 己亥年이 밝았습니다. 族親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權門은 始祖任께서 賜姓을 받으신지 109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後孫들은 훌륭한 조상님들의 얼을 이어받아 繼承發展 시켜 後孫들에게 반듯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날로 쇠퇴해가고 있는 崇祖理念과 忠孝精神을 다시한번 일으켜 세워 국내외 100만 巨族의 名門임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安東權氏派宗會長 協議會를 發足시킨 지도 어언 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後孫들은 다른 姓氏에 龜鑑이 되도록 言行을 바르게 하고 族親 相互間에는 恒常한 핏줄이라는 生覺을 잊지 말고 國家와 地域社會 發展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大宗會를 중심으로 파종회, 지역종친회 등을 더욱 活性化 하여 우리 族親들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派宗會長 協議會의 發展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聲援을 付託드립니다. 今年 己亥年에는 늘 健康하시고 家庭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萬事亨通 하시기를 所願 드립니다.

새해 元旦 安東權氏派宗會長協議會 會長 權仁塔

회 장 권인탐(정조공파회장)			
부 회 장 권병윤(부정공파회장)			
감 사 권영동(동정공파부회장)			
사무국장 권기원(별장공파부회장)			
회 장 단			
종 파 회 장 권오창	부호장공파회장 권영건	추밀공파회장 권경석	북아공파회장 권기호
동정공파회장 권오수	좌윤공파회장 권오신	별장공파회장 권순협	부정공파회장 권병윤
시중공파회장 권중덕	급사중공파회장 권욱형	중윤공파회장 권영탁	군기감공파회장 권기홍
정조공파회장 권인탐	호장공파회장 권병도	검교공파회장 권태강	